

혁신위원장·상임위원장 매듭 풀까...민주 '운명의 일주일'

'이래경 낙마' 후폭풍에 '탈계파' 학자 출신 등 신중에 신중 상임위원장 '정청래 매듭' 못 풀면 내용에 여론 못매 불가피

계파 간 갈등이 비등해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고 있다. 지난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사퇴한 '사태'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분이 가라앉을지 악화일로로 걷어질지 결정될 전망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지난 대선 당시 이 이사장이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한 사실을 거론, 이 대표가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를 꾸리려 했대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직후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이재명 사태'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심리적 분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혁신위원장 인선에 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는 더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이 이사장처럼 진보 진영에 몸담은 활동가 대신 계파 논리에서 자유롭고 극단적 성향을 배제한 학자 출신이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오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김태일 전 장관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친명 혁신위' 논란에서 비껴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전 총장은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려져 있고, 정 교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와 김 교수(금융감독원 부원장)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을 지냈다.

당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이들 모

두 계파 이해와 무관하고 온건한 성향에 개혁 마인드를 갖춘 학자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인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 인선에 더해 '정청래 사태'로 불리는 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

주당 몫 상임위 6곳(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표결 직전 긴급히 보류했다.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또는 지도부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분출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장 내정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선출 보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정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을 맡는 데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직 '교통정리'에 나설 전망이다.

정 최고위원이 강성 성향 당원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반발을 이어간다면 내분이 장기화할 공산이 커보인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윤재갑·주철현 '등판'

尹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朱 '경제' 분야 질문 여야 '선관위 의혹' vs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예고

여야가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과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각각 등판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의 '친미역중'(미국과 친하게 지내지만 중국과는 거리를 둔다는 뜻) 정책과 국민 정서와 다른 대일외교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와 정부의 부실한 대책을 파고들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최근 쟁점이 된 각종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

는 이종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방침 등도 대정부질문에서 핵심 이슈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이슈로 현 정부가 최근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노동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거듭 부각할 태세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입 정권을 대정부질문에서의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지만 '특혜 채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반감이 여전하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북한 해킹 은폐' 등 의혹을 집중 거론하면서 감사원 전면

감사·수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동시에 노태우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이상 정치·외교·통일·안보), 윤상현·이현승·홍석준·전봉민(이상 경제), 김예지·윤주경·백종현·김용관(이상 교육·사회·문화) 의원 등 12명을 질문자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유동수·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이 경제 분야,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제 분야, 같은 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한다.

/김진수기자

민형배 '광산고 신설' 주민설명회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9일 '하남행정부지센터'에서 '가칭 광산고 신설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 옛 하남초 폐교 부지에 신설될 예정인 광산고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인 광산구는 급격한 도시 개발로 학교수에 비해 학생 숫자가 많다. 이로 인해 과밀학급과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고교의 경우 매년 광산구 학생 70여명 정도가 북구나 서구로 원거리 배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18학급, 학생 500



명 규모의 광산고가 2027년 3월 개교하면 광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원거리 배정 이해결될 전망이다.

민 의원은 "광산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광산고 신설을 넘어 광산지역 초·중·고 과밀학급 완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이용빈, 지역 중소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찾아가는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일 평동산단과 소촌산단을 각각 방문, 명품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한아와 무등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평동산단 내 농기계·청소기 제작 전문업체인 ㈜한아는 국내 최초 파수용 농약살포기 국산화를 이뤄냈고 농기계, 도시환경관리장비, 물류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 개발로 해외 진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송창금(㈜한아 대표)은 "에어가전의 스마트화를 통해 광주만의 차별화된 에어가전 제품 개발과 광주공기산업 확대를 위해 광주공기산업진흥회에서 적극 활동 중"이라며 "갈수록 미세먼지 등 공기의 질에 민감해지면서 에어컨·공기청정기·환기시스템 등 공기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자동차 내장재 제조 전문기업인 ㈜무등기업 담당회에서 임직원들은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 예산 확대와 예산



배분 측면에서의 지역 형평성 고려, 생산 인력 부족에 따른 협동로봇 대체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 구분 없이 일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데 자동화·표준화 및 협동로봇 지원사업에 관심을 두겠다"며 "2020년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 중소기업이 19만개로 전남(28만9천개)·전북(28만개) 보다 적은 편이나, ㈜한아와 무등기업처럼 명품 중소기업으로 내실을 다져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